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 마태복음 14장 24~32절

■ 35장(통50), 263(통197)

■ 2018년 6월 17일

세례요한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자 한적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24~27절).

제자들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을 때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24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25절). 밤 사경은 새벽 3시~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바다 한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26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된 이유는 **첫째,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참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이십니다(빌2:6-8). 세례요한이 죽었을 때도 마음이 아프셔서 빈들로 가서 기도하셨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겁을 먹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고난 때에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고통 받는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귀신들린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 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아서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헤롯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심에 빠졌고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입니다(막 6:52). 우리도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혹 연약해지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27절).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견고해졌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풍랑과 같은 슬픔이 많고 고통도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28~29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28절). 그 때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물 위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29절).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말씀대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말씀대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말씀대로 사자 굴에서 건져주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인 것을 꼭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30~32절).

베드로가 예수께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30절a).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의 생각, 염려, 근심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근심을 주고, 넘어지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가도 연약해져 의심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위로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스러워 하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주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마15:22~28). 오늘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을 보지마시고 주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30절b). 그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주셨고, 같이 배에 타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31~32절).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은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건져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부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 공과 내용

1. 제자들이 두려워 떨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보세요(24~27절).
2.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보세요(28~29절).
3.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30~32절).